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12(금) ~ 2023.05.18(목)

제공일시 2023 05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12(금) ~ 2023.05.18(목)

제공일시 2023 05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미국, 태양광 시설에 세제혜택 추가...한화큐셀 벌드나

- 미국 정부가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민일보, 2023.05.14) 양민철 기자
-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국내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공개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모듈·인버터 등의 부품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10% 세제 혜택을 추가하도록 했음.
- 미국에 짓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더하면, 최대 40%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셈임.
- 다만, 태양광 업계는 미국에서 중국산 모듈을 대체하는 건 호재지만, 중국산 부자재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의 세부 시행상황을 살펴보며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임.

2. EU의회, 탄소상쇄에만 근거한 녹색 주장 금지 제안

-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친환경 클레임(주장)을 입증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제안규칙 채택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에서 544대 18로 찬성했음. (ESGToday, 2023.05.15) Mark Segal 기자
- EU위원회(EC)에서는 기업이 녹색 주장을 입증, 전달, 검증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했는데, 독립적이고 검증되어야 하며, 기업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식별해야 한다고 돼있음.
- EU의회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하나 넣었는데, 탄소상쇄 계획에만 기반을 둔 '탄소중립' 녹색주장에 대해 금지하는 규칙을 포함하는 것임.
- 또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탄소중립' '녹색'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더해, 의회 개정안에서는 '동물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중립' '플라스틱 프리' 등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했음.

3. EU, '산림 벌채 기여 상품 거래 규제' 새 법안 채택

- 유럽연합(EU)이 16일, 세계 산림 벌채에 기여하는 일련의 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공식 채택했음. (뉴스스, 2023.05.16) 유세진 기자
- EU 27개국의 새 법안에 따르면, 야자유, 소, 나무, 커피, 코코아, 고무, 대두 등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그들이 EU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2021년 이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산림 벌채와 산림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함.
- 이 규정은 또 초콜릿이나 인쇄된 종이 같은 파생 제품들에도 적용되며, 기업들이 수입하는 상품이 인권과 원주민 보호를 포함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음.

1. 그린피스, "플라스틱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기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필요"

- 17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달 말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2차 협상회의를 앞두고 유엔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은 지난 16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서 UNEP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강조하는데, 이에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 재사용, 리필을 근본으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5년을 협약 종료시점으로 삼고, 전 세계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준을 만들어낼 중요한 회의임.
- 특히 업계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플라스틱 버전이라고도 불리니, 기업들은 관련 협약의 진행과정을 챙겨볼 필요가 있음.

(한국NGO신문, 2023.05.17) 장명수 기자

2. 배터리 자원순환 '팀코리아' 선언... 'EV 자원순환협회' 창립

- EV 자원순환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CTR 그룹 주도로 창립한 EV자원순환협회 창립총회에는 △LS MnM △원익PNE △민테크 △포엔 △이브이링크 △경남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한국 EV기술연합회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유관 협회 약 30개 사가 참여, 총 50명의 인원이 참석했음.
- 협회에 따르면, EV 자원순환협회는 EV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사업 생태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창립됐음.
- 협회는 배터리 2차 생애 유관산업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비롯해 공동 사업 추진, 공동 R&D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참여사와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할 예정임.

(아주경제, 2023.05.16) 홍승환 기자

3. 수소버스 사업 환경부-산업부 이원화, 친환경차 보급 걸림돌 지적

- 수소버스 관련 정부 사업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되면서 중대형 상용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수소버스 보급은 환경부가, 수소버스의 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은 산업부가 사업을 수행 중임.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은 산업부가 맡고 예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에서 총 280억원이 투입되는데, 수소버스 1대당 지원되는 비용은 1억1000만원으로 7000만원은 국비, 4000만원은 지방비로 지원됨.
- 반면, 수소버스 보급 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올해 수소버스 700대 보급 계획을 세우고 162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부의 도입 목표는 산업부의 시범사업 규모 400대를 뛰어넘음.
- 300대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처럼 환경부와 산업부로 수소버스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수소버스를 들여오려는 지자체는 혼란을 겪고 있음.

(전자신문, 2023.05.18) 최다현 기자

1. ISS, 글래스루이스가 토탈 에너지스의 기후 투표에서 분열

-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토탈에너지스에 대해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주주결의안에 대해 서로 다른 권고를 했음.
- 팔로우 디스라는 유명 기후행동주의단체에 의해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ISS는 투자자들에게 이 결의안을 지지하라고 권고했고, 글래스루이스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토탈에너지스 회사 자체는 가스 사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주주들에게 팔로우 디스의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ISS는 토탈에너지스의 라이벌 셸의 주주를 추천하며, “2030년까지 스코프3 목표와 석유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가스에 의존하는 사업계획을 볼 때, 감축 계획이 엄격하지 않다”고 밝혔음.

(Reuters, 2023.05.16) Ron Bousso, Shadia Nasralla and America Hernandez 기자

2. 신일본제철, 제강의 탄소영향 감소 방안 발표

- 세계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인 신일본제철이 회사의 탄소중립 205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탄소감축 조치를 발표했음.
- 새로운 탄소감축 조치는 고로 제강에서 전기로 제강으로 전환하고, 전기 강판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계획임
- 2030년까지 배출량 30%를 줄일 계획인데, 1) 제강공정의 탈탄소화를 통해 운영상의 배출량 감축이고, 2) 저탄소 제강 제품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신일본제철은 전기로 제강으로의 이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막대한 자본 지출과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일본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ESGToday, 2023.05.16) Emily Fowler 기자

3. Svante, 탄소 포획용 소재 개발 위해 3M과 파트너십

- 탄소포집및제거 기술업체인 Svante가 이산화탄소를 가둘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3M과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음.
- 3M의 벤처캐피털 부문인 3M벤처는 스반테의 3억1800만달러 시리즈E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협력이 발표됐음.
- 대기 중 탄소포획 기술을 초기단계인데, 2007년 설립된 스반테는 산업용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포집, 제거하는 흡착베드(필터)와 모듈식 로터리 기계를 통해 기존 인프라에서 탄소포집을 함.
- 이는 기존 산업의 탈탄소 및 DAC(대기 중 직접포집)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두 회사는 흡착제 기술을 사용하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공동개발계약(JDA)을 체결했음.

(ESGToday, 2023.05.17) Emily Fowler 기자

1. SK에코플랜트, 6조원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 동반행보

- SK에코플랜트가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앞세워, 글로벌 대륙 간 초대형 그린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함. [\(이투뉴스, 2023.05.17\) 체제용 기자](#)
[\(에너지신문, 2023.05.17\) 신석주 기자](#)
- SK에코플랜트는 17일, 캐나다 월드에너지GH와 45억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 '뉴지오호닉 그린수소 1단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음.
-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약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독점적 수주기회를 확보했으며, 전체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를 공급, 설치할 계획임.
- 이번 협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5000만달러(약 660억원) 규모를 투자해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향후 수전해 주기와 그린암모니아 플랜트 EPC까지 도맡으며 그린수소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됨.

2. HD현대에너지솔루션, 초고효율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 박차

-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 개발에 나섰다. [\(메트로, 2023.05.14\) 양성운 기자](#)
-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대면적 박형 HJT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 기술 고도화'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음. [\(서울경제, 2023.05.12\) 박호현 기자](#)
- 이 국책과제에는 국내 부품·장비 생산 기업, 태양광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총 8곳이 참여함.
-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초고효율 대면적(M10급) HJT 태양전지 양산에 나설 계획임.

3. 삼성물산, 그린수소 개발사업 본격화...글로벌 기업과 업무협약

- 삼성물산이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자회사인 글로벌 에너지 전문 기업 DGA(Diamond Generating Asia)와 호주 그린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5.18\) 남성인 기자](#)
[\(더구루, 2023.05.18\) 홍성환 기자](#)
- 양사는 지난 17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서호주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한편, 삼성물산과 호주 수소기업 인피니트그린에너지(IGE)는 서호주 주도 퍼스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애로우스미스 지역에 수소 플랜트를 개발하는 업무협약(MOU)도 맺어.
- 프로젝트는 풍력·태양열 발전을 이용해 하루 최대 300t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상업 운전이 목표로 함.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5.12(금) ~ 2023.05.18(목)

제공일시 2023 05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미,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파트너십 모색...100억파운드 경제성장 효과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이하 SAF)의 생산량은 2022년에 3배로 증가했으며 2025년까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상하는 SA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음. [\(임팩트유, 2023.05.17\) 홍명표 기자](#)
[\(임팩트유, 2023.05.15\) 최동훈 기자](#)
- 영국의 교통부 장관 마크 하퍼(Mark Harper)가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미국 교통부 장관을 만났음. 두 장관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SAF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 파트너십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함께 항공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영국 교통부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100억 파운드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SAF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SAF공장을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영국 정부가 발간한 SAF가치 사슬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따르면, SAF 생산자들은 비용 면에서 유리한 EU와 미국에 SAF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됨. 보고서는 추가 정책 지원 없이는 영국이 필요한 SAF연료의 약 절반만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또 영국은 가장 중요한 항공 계획인 젯-제로(Jet-Zero) 전략을 발표하여 공항 운영 및 국내선에 대한 2040년 넷제로 목표와 국제선에 대한 2050년 목표를 설정했음. 젯-제로 전략의 핵심은 SAF의 공급을 확대하고 전체 사용연료 중 SAF의 혼합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임.
- 현재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제트 연료의 최소 10%를 SAF를 사용하여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 규칙을 충족하려면 매년 15억 리터의 SAF를 생산해야 함.
- 한편, 미국의 거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이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2023년 내에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의 사용을 세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 유나이티드 항공은 2016년부터 로스앤젤레스 국제 공항에서 SAF 혼합연료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해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사용할 연료를 출시한 바 있음.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조치로 2023년에 지난해와 비교해 약 3배, 2019년에 비해 약 10배 많은 1000만 갤런의 SAF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음.
-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까지 50억 갤런 이상의 SAF 미래 생산에 투자하며 단일 항공사 기준 최대 저탄소 연료 사용자가 되는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다. "올해 가장 많은 SAF를 사용한 항공사가 되어, 더 많은 마일을 SAF를 사용해 비행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음.

- 유나이티드 항공의 SAF 사용은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시작돼, 올해 말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조치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SAF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됨.
- 또한 이번에 사용되는 SAF는 에코 스카이 얼라이언스(Eco-Skies Alliance)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불될 예정임. 에코 스카이 얼라이언스는 참가 기업들이 저배출 연료를 채택하도록 협력하는 지속가능성 협의체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주도하고 있음. 2021년 4월 처음 시작된 에코 스카이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거의 1500만 갤런의 SAF 구매가 이뤄졌다고 함.
- SAF의 지지자들은 SAF가 기존 제트 연료와 비교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CA) 기준으로 배출량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에코 스카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구입한 SAF로 약 15만 미터톤의 배출량을 줄인 것임.
- 유나이티드 항공은 앞으로 토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모에 따라 생산될 수 있는 가정용 폐기물, 산림 폐기물, 해조류, 또는 기타 형태의 압축 CO2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원료에서 SAF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